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62, No. 7 (Nov. 2012) pp. 170-184 http://dx.doi.org/10.7233/jksc.2012.62.7.170

제주신화 자청비(ᄌᆞ청비) 콘텐츠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오 정 순 · 나 현 신 ·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extile Design using Contents of Jeju Myth, Jacheongbi

Jeong-Soon Oh · Hyun-Shin Na · Ae-Ran J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2. 6. 2, 심사(수정)일: 2012. 9. 15, 게재확정일: 2012. 9. 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one of Jeju culture contents projects, to suggest a new method to develop the textile design using contents of Jeju Myth, *Jachongbi*, in other words, to create mythic patterns by borrowing effectively from the mythic image of *Jacheongbi* on contemporary fashion. To achieve this, after extracting mythic contents from real animals from the myth (*chicken, horse, cow and owl*) of *Jacheongbi*, we draw the animal motifs from a mythic image basis of archetypal symbols and empirical awareness about animals and shamanistic imagination, and create mythic patterns. In order to achieve this design pattern, Adobe Photoshop CS5 Extended was used to design the animal motifs, and then they were arranged via bidirectional layout. And to conclude, development of the creative textile design using the mythic contents of *Jacheongbi* contribute to invigorating the fashion industry and regional culture contents projects in Jeju, and also become the basis of creating added value to it.

Key words: animal Motif(동물적 모티브), Jacheongbi(자청비), Jeju myth(제주신화), pattern design(문양 디자인), textile Design(텍스타일디자인)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Ae-Ran Jang, e-mail: jemmaran@jejunu.ac.kr

Ⅰ. 서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 민족 역시 옛날부터 전파 전승되어 온 많은 신화가 존재하며, 그 신화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세계관, 가치관, 이상 등이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주었고, 풍속을 정착시키고 행위의 모범을 설정해주었으며, 세워놓은 제도에 위엄과 중요성을 부여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신화가 한국의 역사, 종교, 민속, 문화, 교육, 심리 등의 연구는 물론 한국인의 근원탐구에도 중요한 자료[1]가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건국 신화 이외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서 한국인의 심성에 신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반면 서구의 경우에는 신화를 토대로 한 무수한 문학, 미술, 연극, 영화작품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로마신화가 서양 문화의 근간으로 서양인들의 문화, 예술,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패션계에서도 비요네(Vionnet)는 드레이퍼리를 활용한 가디스 드레스(goddess dress)를 클래식 아이템으로 정착시켰고, 베르사체(Versace)는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모티브를 브랜드 로고로 디자인하였다. 그 외에도 알렉산더 맥퀸, 발렌티노 등 패션디자이너들이 신화의 이미지들을 활용한 디자인을 전개[2]시킴으로써 신화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더욱이 한국에는 신화를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이용된 사례조차 서구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신화가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일종이면서 원형으로 작용 가능하므로, 신화 그 자체를 일종의 모델로 하고, 그 모델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을 이끌어낸 콘텐츠가 신화의 재탄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3]임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화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중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신화 자체로도 존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로 다양하게 수용[4]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신화야말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사려된다. 그 이유는 '제주도'라는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 내용이 독특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정신세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채 고유한 모습으로 간직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에서의 신화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시대적 전환 속에서 불교・유교와 같은 중세 보편주의 문화의 영향력이 미약하였기에 고대 자기중심주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 유일한 민속 문화의 한 지역형[5]으로 고유한 전통문화로 계승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탐라의 공동체 삶 속의 무속신화로 뿌리 깊게 남아[6] 있다는 점, 지역적 특성상 고립되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인간의 염원을 기원해주는 1만8천이라는 많은 신들의 스토리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고대신화나 다른 지역의 신화와는 달리 무속신앙과의 연관성, 여신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 등의 특이한 사항들이 콘텐츠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소재임을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신화는 향토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으며, 특히 민족문화의 원형과 정체성이 집약적으로 잘 정돈된 일종의 압축파일이라 간주되므로 제주신화에 대한 고찰은 물론 현대적인 해석 및 재구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됨에 따라 제주신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신화는 염원을 기원하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염원은 보다 다양한 성격의 당(堂)신화를 창출해냈고, 그 신앙의 주는 여성이었다. 예를 들어, 자청비 신화는 많은 여신들 중에서 오곡종자를 가지고 지상으로 도래한 자청비가 주인공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산 제주여성들의 고단했던 삶을 대변해주는 제주여성의 원형이다. 즉, 적극적인 여성 자청비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이 드라마틱하여 제주신화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꼽히고 있어서 자청비신화를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활성화[7]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화의 현대적 해석 및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의미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독창성과 경쟁

력을 지닌 신화 콘텐츠가 제시되어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패션산업에서도 자청비 콘텐츠를 응용한 패션문화상품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제주신화 자청비 콘텐츠를 응용한 창의적인 텍스타일디자인 개발을 시작으로 제주신화에 대한 체계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제주패션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콘텐츠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구비전승(口碑傳承)된 신화원형이면서 신화의 스토리텔링 중 가장 잘 알려진 자청비신화를 중심으로 신화에 등장한 동물을 발췌한 후 그 동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여 추출한 신화이미지를 동물적 모티브 중심의 텍스타일을 개발함으로써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의미가 함축된 신화문양의 조형적 장식효과를 시각화하고자 한다. 즉, 자청비신화와 그 신화를 토대로 한 일종의 문화콘텐츠로 재창작된 신화이미지를 실제적인 현대패션에 차용할 수 있는 신화문양으로 도출하고자 신화 속의 동물을 추출한 후 이를 다양한 재해석 및 재구성을 통해 디자인함으로서 새로운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해 자청비신화에 등장한 동물들(붕새, **소, 말, 닭,** 개, 돼지, 병아리, 오리, 개미, **부엉이**, 매미 등)중에서 텍스타일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소, 말, 닭, 부엉이 등을 발췌한 후 그 동물들의 문헌상의 상징적 의미를 토대로 신화적 의미가 함축된 신화이미지를 도출한다. 2차적으로는 1차에서 도출한 신화이미지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차용할 수 있는 동물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신화문양의 텍스타일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주신화 자청비

한국 신화 중에 제주신화는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제주신화에는 한국의 문헌 신화에 없는 창세신화, 인류창조신화, 만물창조신화, 운명신화 등이 생생하게 보존[8]되어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만8천신들이 존재하는 '신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곳으로서, 특히 무속신앙이 성행한 지역이다.[9]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조선조 성리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비교적 쉬웠기에 무속이 오랫동안 존재한 지역으로 구비신화가 잘 보존되었던 곳[10]이다.

무속신화에 해당하는 제주도어는 '본풀이'이다. 본풀이에서 '본'은 뿌리, 근본(根本), 내력(來歷), 본원(本源) 등을 뜻하는 말이며, '풀이'는 '풀다'의 명사형으로서 해석, 해설, 설명을 의미한다.[11] 그러므로 본풀이란 심방(무당)이 굿을 행할 때 제상 앞에서 신을 향하여 노래조로 부르는 것으로서, 신의 출생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비를 거쳐 신의 직능을 맡아 좌정(坐定)할 때까지의 내력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며 서사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청비(ᄌᆞ청비)신화'로, 일반 본풀이 중의 하나인 '세경본풀이'[12]에 해당한다. 세경본풀이는 지상의 소녀인 자청비가 천상의 문도령을 만나 결국 부부가 되어 세경(世經)이라는 농경신으로 좌정한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자청비는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으로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가믄장아기[13]와 더불어 제주 산천의 정기를 이어받아 태생한 본토출신이며, 제주 여성을 대표하는 원형, 즉 강한 생활력,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부심을 지닌 강인한 여성이라는 속성을 갖추었다. 그러한 속성은 자청비가 농경신으로 좌정한 상징성이며, 제주여성들의 강한 생활력,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부심을 지닌 강인한 여성상이라고 대변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제주여성의 자질은 자청비가 스스로 선택해서 얻어진 시련과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극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랑을 성취한 후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과정 속에서 척박한 제주의 환경에서의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했던, 그래서 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여성의 삶이 자청비의 영웅적 일대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청비 신화는 자청비의 출생, 문도령과의 만남과 수학(修學), 사랑과 이별, 자청비의 수난과 극복, 결혼과 영웅적 활동을 통해 변란을 진압한 공적으로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나라 신화 가운데 가장 장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고 사건도 다양하다. 굿판에서 심방에 의해 오랜 세월 구비 전승되어 온 것이기에 채록된 자료에 따라 부분적으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본 연구에서는 현용준의『제주도 신화』에 수록된 자청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5가지로 나누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청비의 탄생 - 나이 오십이 가까워도 자식이 없던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백일 간 불공을 드려 태어난 계집아이 자청비는 앞 이마엔 해님이요, 뒤 이마엔 달님이요, 두 어깨엔 금 샛별이 송송히 박힌 듯한 귀여운 아이였다. 자청하여 낳은 자식이니 이름은 '자청비'라 지었다.

② 문도령과의 만남과 이별 - 세월이 흘러 열다섯 살이 되던 어느 날 빨래하면 손이 고와진다는 여종의 말에 빨래터 연못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천상에서 글 공부를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문도령을 보고 반해 함께 글공부를 가기로 결심한 다. 남장을 하고 숙식을 같이 하며 글공부를 하던 중 문도령이 부친의 부름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자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며 문도령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고 문도령은 박씨 하나를 주고 하늘로 올라간다.

③ 자청비의 수난 - 이별 후 자청비는 소식 없는 문도령을 애타게 기다리던 중 하인 정수남은 자청비네 ***소와 말*** 각각 아홉 마리씩 모두 열여덟 마리나 잡아먹고 연못의 예쁜 ***오리***를 잡아다주고 자청비의 환심을 사려했으나 도끼마저 잃어 버리고 댕댕이덩굴로 앞만 가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청비에게 산에 문도령이 노니는 것을 보다가 우마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소식을 듣고 좋아하니 정수남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이를 하는 장소를 알려준다 하여 그와 함께 산에 간다. 하지만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고, 자기에게 음심을 품어 겁간하려는 정수남을 죽이게 된다. 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부엉새***를 잡아주는 공을 세운 후 그곳 꽃감관의 남장 사위가 된다. 그 후 그곳에서 환생꽃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리나 여자가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한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다시 내쫓김을 당한다.

④ 결혼과 영웅적 활동 -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하늘 나라 문도령에게 갈 비단을 짜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짜 넣는다. 이것을 본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자청비의 실수로 문도령은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 이일로 자청비는 청태국할망에게도 쫓겨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가 문도령이 내려 보낸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나다.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시부모가 낸 시험인 숯 쉰 섬에 불을 피운 오십 자 구덩이에 거꾸로 세운 작도를 타고 건너야하는 통과의례를 통과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 문도령과 약혼한 서수왕따님 아기는 분통한 나머지 자살하면서 온각 사기를 만들어 낸다. 결혼 후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서천꽃밭의 남장사위가 된 사연을 말하고, 문도령을 서천꽃밭으로 보내어 꽃감관 딸과 보름씩 나누어 살자한다. 그러나 자청비는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까마귀날개***에 편지를 띄워 문도령을 돌아오게 만든다. 하늘나라에서 자청비를 시샘하는 자들에 의해 문도령이 살해되자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도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려낸다. 그러나 하늘에 큰 변란이 일어나자 서천꽃밭의 멸망꽃으로 펼치며 이 난을 평정하는 영웅적 활동을 펼친다.

⑤ 농경신으로 좌정 - 자청비는 난을 평정한 공을 인정받아 오곡씨앗을 가지고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도래하여 농신(農神)인 세경이 되고 정수남이는 축산신(畜 産神)이 되어 많은 목자를 거느려 ***마소***를 치며 칠월에 마불림제를 받아먹게 되었다. 그래서 문도령을 상세경, 자청비를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으로 부르는 것이다

2. 자청비신화의 콘텐츠(contents) 개념

콘텐츠의 사전적 개념은 '논문, 서적, 문서 등의 내용 또는 내용의 목차'를 말하며, 일반적 개념으로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및 이들의 집합체로서 담는 그릇(미디어)을 전제로 한 내용물을 의미한다.[14]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KDCPA)에서는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가치와 효용을 제공하는 핵심의 지식과 정보"라고 정의한 것으로 보아, 콘텐츠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콘텐츠의 구성요소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등이거나 이들의 결합물이나 연속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콘텐츠는 정보의 한 형식이며 메시지의 특별한 형식[15]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감동, 상상력, 예술성, 가치관, 생활양식 등 정신적・감성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상품[16]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리라고 사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자청비신화 콘텐츠란 자청비신화를 원천적 소스로 창작의 모티브로 도출하여 신화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제공해주는 이미지라 하고자 한다.

그것은 문화콘텐츠의 원소스로 작용한 것이 바로 신화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오랜 세월동안 인류와 함께 지내오면서 생로병사, 사랑과 미움 그리고 질투,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등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17] 이에 수많은 예술가들은 신화 속의 이미지 혹은 테마와 대화하면서 창작의 모티브를 도출하여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화를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개별 작품으로 구체화하였다. 자청비신화를 예로 들어보면, 문학(서사시, 소설), 공연예술(뮤지컬, 마당극, 소리판 굿), 만화, 애니메이션, 음반과 그림 등을 통해 다양하게 예술화[18]되었다. 이는 조동일[19]이 세경본풀이가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장편이며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세경본풀이는 그만큼 상세한 스토리텔링 구조와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려된다.

그러므로 자청비신화의 콘텐츠는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기본적인 소재가 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을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OSMU)' 방식으로 활용한 문화상품 디자인의 개발에 한국 고유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 우리 고유문화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음[20]을 근거로 한 것이다.

콘텐츠화를 위한 자청비 신화의 의미는 농경기원이며, 내용은 농경과 풍농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청비가 오곡종자와 메밀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왔다는 부분에서의 '곡물'은 원래 하늘, 즉 신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인식 하에 곡물이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된 것이다.

그리고 남녀 두 신(상세경인 문도령과 중세경인 자청비)이 각기 하늘과 땅의 존재로 설정된 것은 농경은 땅과 하늘이 함께 주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씨앗은 땅에 심지만 햇빛과 비는 하늘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축신(하세경인 정수남)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된 부분, 즉,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이 자청비 집의 하인으로 설정된 것은 농업을 위해 마소가 이용되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이들을 주종관계로 설정한 것은 가축 사용을 농경의 종속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결국 목축신은 마소의 힘을 이용하였으므로, 힘을 상징하는 남종으로 형상화시켰다고 본다.

그 외에 자청비라는 여신의 이름에는 비를 부르는 주술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농경에 있어 비는 필수적이므로, 신화에서는 여신의 이름을 '자청해서 비를 부르는 신'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21]

이상을 살펴본 결과, 신화를 창작 모티브로 도출하여 이미지화한 콘텐츠야말로 신화의 재탄생[肉化]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22]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화의 재탄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화 속에 등장한 동물을 발췌하여 상징적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신화콘텐츠를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신화적 의미가 내포된 동물적 모티브를 형상화하려는 것이다.〈표 1〉[23] 여기에서 원시시대부터 신

화의 주소재인 인간,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 중에서 동물을 선택한 이유는 신화는 신화 자체가 갖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상징이 필요하였고, 이 상징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물과 식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식물은 신화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주어진 맥락 속에서 중요한 역할, 즉 신성(神聖)이나 주력(呪力)의 현시(顯示)로서 인간과 신・이승과 저승・자아와 우주를 연결한 영매(靈媒)로서 역할을 하며 또한 신화적 세계관의 구성원리에서 보면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반신반인(半神半人)적 존재[24]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신화이미지를 신화문양으로 도출하려고 한 이유는 문양이야말로 차별화된 고유문화의 특성을 근거로 고유성 혹은 특성화가 반영된 세계화 상품으로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매체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동물에 대해 경험적 인식과 주술적 상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화이미지의 형상화는 원시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어 사용된 모티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창세신화인 천지왕 본풀이를 보면, 살아 있는 생명체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천황닭'과 '지황닭', '인황닭'이다.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지상에 사는 새라는 것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닭이 운다는 것은 하늘과 연결된 곧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연에서 문명으로의 이행을 알리는 신호[25]라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도 자청비의 등장으로 문도령과 결혼하기로 했던 서수왕따님 아기가 열이 받쳐 새로 환생한 부분에서 동물의 기원 및 기능을 찾아 볼 수 있다.

> "석 달 열흘 백일이 지나 방문을 떼고 보니, 서수왕 따님 아기는 새의 몸으로 환생이 되어 있었다. 머리로 두통새가 나오고, 눈으로 흘그새(흘깃흘깃하는 새)가 나오고, 코로는 악심새가 나오고, 입으로 헤말림새(정을 이간시키는 새)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26]

이를 해석해보면, 서수왕따님 아기는 죽은 원혼으로 농경신이 된 자청비를 시기하여 곡식을 쪼아 먹거나 두통을 안겨주거나 부부 살림 따위 결연을 분산시키는 헤말림새가 되어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이다.[27]

Ⅲ. 자청비 신화콘텐츠를 응용한 문양디자인

문양은 집단적인 가치 감정의 상징형으로 일반화되어 문양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표 1〉 신화원형에서 추출한 동물의 신화콘텐츠

	발췌 내용		신화콘텐츠	출처(쪽)
신화에 등장한 동물	하늘 옥황 붕(鵬) 새	➪	붕새(상상의 새)	149
	두 사람의 이별을 재촉하는 새벽닭이	➪	**닭**	151
	땔감을 싣고 오는 마, 소의 행렬만이	➪	**말, 소**	152
	자청비는 편지 한 장을 써서 까마귀 날개에	➪	까마귀	177
	돼지 머리를 차려놓아	➪	돼지	157
	종이 먹다 남은 건 개가 먹는 법입니다	➪	개	160
	병든 병아리만큼씩	➪	병아리	160
	알록달록한 오리 한 마리가	➪	오리	154
	개미 한 마리가	➪	개미	165
	어린 아이 셋이서 부엉이를 하나 잡고	➪	**부엉이**	165
	나가서 매미와 등에를 많이 잡아 왔다	➪	매미, 등에	178

- 제주도 신화

같은 성격을 지니므로, 의식의 반영이면서 정신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적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28]

문양 의식은 후세에 내려오면서 토템과 미신적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상징, 문양, 장식, 치장, 디자인 등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나, 이것들이 의도하는 목적은 모두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형적 장식이다. 특히 고대로부터 즐겨 사용된 많은 문양들 가운데 인간을 계도(啓導)하거나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의 의미로 주로 동물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29] 그 첫 번째 이유는 태초에 인류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동물과 싸워 자신과 종족 보전은 물론 사냥으로 식생활을 해결해야 했으므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물은 매우 중요한 대상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미신(Shaman)과 토템(Totem)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때부터 무병장수하고 수렵과 농사가 잘되고, 재앙으로부터 편안하고, 부귀 다복을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힘을 주는 대상으로 동물을 선택하였다. 이에 동물의 위력적인 힘이나 생태적인 비유를 암시적 의미의 문양으로 표현하였으며, 동물로는 소, 말, 돼지, 학, 물고기 등과 같은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상동물들도 있지만, 봉황이나 용과 같은 상상의 동물이나 백택(白澤) 혹은 해치(獬廌)와 같은 의미성을 부여한 가상동물도 있었다. 그 외에 곤충이나 어류, 조류 등도 문양에 사용되었지만, 선택의 기준은 동물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가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다.[30] 즉, 동물의 외형이나 생태적 특징이 문화적 상징으로 관념화됨에 따라 상징성과 암시성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는 닭, 강아지, 거북, 소, 돼지, 뱀 등 제주의 산과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상동물들이다. 이들의 등장과 개입은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하며, 특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이 등장하여 신과 인간을 매개하거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의 뜻에 따라 주인공들을 돕거나 시련을 주는 시험대 역할도 한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청비 신화에서 신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시킨 실상동물 중에 닭, 말, 소, 부엉이를 신화콘텐츠로 발췌하여 동물의 원형적 상징 의미와 동물에 대한 경험적 인식, 그리고 주술적 상상을 바탕으로 도출한 신화이미지를 동물적 모티브 중심의 신화문양으로 텍스타일 패턴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신화문양은 모티브와 패턴으로 나누어 개발한다. 즉, 문양을 이루는 기본 단위의 형태인 모티브와 모티브가 모여서 이루는 문양의 전반적인 형태인 패턴으로 문양디자인을 제시한다.

1. 신화콘텐츠의 원형적 상징의미 분석

1) 닭(화목, 벽사, 출세)

일반적인 닭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입신출세나 부귀, 화목함을 상징한다. 닭은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존재로, 어두운 것에서부터 밝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닭의 밝은 기운은 신성시되어 요사스런 귀신을 물리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일반적으로 닭이 울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귀신들이 달아난다고 하여 잡귀를 없애는 동물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닭이 머리에 벼슬을 달고 있는 것은 관(冠)을 쓰고 있다고 하여 입신출세나 부귀공명의 의미로 여겼다.[32] 그 외에도 닭은 예로부터 문, 무, 용, 인, 신의 오덕(五德)을 갖춘 덕금(德禽)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머리에 관(볏)을 쓰고 있으니 문(文),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무(武), 적을 맞아 물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니 용(勇), 음식을 보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먹으니 인(仁), 밤을 지키되 그 때를 잃지 않으니 신(信)이라 했다. 특히 수탉이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그린 문양은 공을 세워 명성을 날린다는 공명(功名)의 의미로 해석된 공계명을 말하며, 수탉을 가리키는 한자 웅(雄)은 영웅 웅자를 써서 용맹한 기상을 상징하였다.[33] 문양에 표현되는 닭은 수탉으로 "웅계(雄鷄)"라 부른다. 여기에서 "웅(雄)" 자를 영웅으로 나타낸 것은 수탉이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하여 죽을 때까지 싸우는 용맹한 기상을 의미하므로, 영웅의 투지를 상징한다.[34]

무속신화나 건국신화에서 닭울음소리에 관한 신화적 의미는 천지개벽이나 국부(國父)의 탄생을 알리

는 태초의 소리이다. 제주의 창세신화 '천지왕본풀이'[35]에서 닭은 천지인을 관할하는 신격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서두에 "천황(天皇)닭이 목을 들고, 지황(地皇)닭이 날개를 치고, 인황(人皇)닭이 꼬리를 쳐 크게 우니 갑을 동방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라고 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닭 울음과 함께 어둠을 물리치고 새 날을 알리는 광명의 천지창조, 즉 천지개벽이 되었음[36]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닭의 울음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다가옴(아침이 밝았음)을 알린 다기 보다는 혼돈이 끝나고 새날, 새 세상이 옴을 알려주는 역할, 새벽(빛)을 알리는 행위로 인해 '신성조'가 되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이상 천지왕본풀이에서의 닭 울음이 혼돈에서 질서로의 이행이라는 우주적 차원의 질서를 예고[37]한 신화적 의미와 더불어 '이공본풀이'나 '세경본풀이'에서의 닭 울음소리는 새벽이 오는 것을 보고 밤을 지배하던 귀신들도 물러가게 한다는 축귀를 상징하며, 더 나아가 암흑과 혼돈에서 태초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새 두 사람의 **이별을 재촉하는 새벽닭**이 목을 들기 시작했다.

> "설운 도령님아, 날이 샙니다. 행차 때가 되었으니, 노각성자부줄로 어서 옥황으로 오르십시오."[38]

위의 자청비 신화에서 유추한 닭(닭 울음소리)의 신화적 의미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삶에서 헤어짐과 만남의 전환점을, 더 나아가 닭이 운다는 것은 하늘과 연결된, 곧 밝음을 상징하며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2) 말(신성함, 위대함, 의리와 충절)

말의 이미지는 외모적인 면에서 싱싱한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탄력 있는 근육, 매끈하고 탄탄한 체형, 기름진 모발,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 등의 강한 인상에서 박력과 생동감으로 수렴된다.[39]

일반적인 말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신성하고 상서로움의 상징이며, 역경의 팔괘 중에서 건괘의 상징 동물로서 하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말은 제왕출현의 징표로 왕권을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이면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동물로 여겨짐에 따라 천마(天馬)사상이 유래되어 하늘과 지상을 잇는 성스러운 동물로 숭상되었다. 그래서 무덤이나 제례용품에 천마그림이나 문양이 많이 사용된 것도 천마가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하느님이 날개달린 천마를 타고 하늘을 달린다고 전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흰 말은 신성시되어 순결과 광명, 신성함, 위대함, 길함 등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말은 하늘의 상징인 태양을, 태양은 남성을 의미하므로, 말은 바로 남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말은 강건하고 씩씩한 성질로 남성적인 동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남성을 상징하는 남성의 원리 풍속에서 나온 것[40]이라고 본다. 그 예가 바로 우리 혼속(婚俗)에서 신랑이 백마를 타고 신부집에 가는 풍속이다. 결론적으로 말은 국가의 위업에 공헌하고 부의 증식 수단이며, 사람에게 의리와 충절을 보이고, 영혼의 운반자이며 천신(天神)의 사자(使者)이고, 권세와 뛰어난 주력(走力)을 지닌 존재[41]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외 무속에서의 말은 수호신, 즉 "무신(武神)"으로 여겨, 마을을 지키는 서낭신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액운이나 귀신을 물리치는 수호신이라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목마(木馬), 토마(土馬), 석마(石馬), 철마(鐵馬), 사기마(砂器馬) 등으로 만들어서 "서낭당"에 모신 것으로 보아 말을 신성시하고 숭상하여 동물숭배라는 주술적 의미가 내포된 호부적인 보호신, 즉 동물신[42]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기다리는 문도령은 아니 보이고, 남의 집 종놈들이 땔감을 싣고 오는 **마소**의 행렬만이 보이는 것이다. 어러렁떠러렁 하며 몰고 오는 쇠머리엔 저마다 울긋불긋 진달래가 꽂혀 있어, 마치 그 소 모는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춤을 추는 듯했다.....(152)

> 자청비는 야단을 늘어놓았다. "상전님아, 그리 말고 소떼에 가 소 아홉, **말**떼에 가 **말** 아홉, 소 길마·말 길마 차려 주면 저도 내일은 가오리다." 날이 밝자 정이으신정수남이는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에 길마를 지워 놓고.....(153)

위의 자청비 신화에 구체적인 소 말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 소나 말을 사육하였으며, 필요

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재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찍부터 말은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3) 소(부유와 번창, 재산과 힘, 재물을 상징)

일반적인 소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부(富)와 번창을 상징한다. 소는 예로부터 농사에 꼭 필요한 노동력으로 소중하게 여겨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이에 소를 생구(生口)라고 부르는 등 재산과 재물의 증식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인식하였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묏자리가 소의 형국이면 그 자식이 부자가 되다"고 하였다. 이 또한 소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는 우직하고 유유자적하기 때문에 덕망 있는 인물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소의 뿔이 반달 모양으로 생겨 달처럼 기울었다 다시 차고 차오른 후에 다시 기우는 재생과 생명력,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43] 이와 같이 소는 대체로 순하고 부지런한 가축이면서 사람에게 충직하고 성실하며 한편으로는 우직함을 상징한다.

신화에서 소는 희우(犧牛)로 사용할 만큼 평화를 의미하는 신성한 동물이면서 희생의 제물로 등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주도 삼성혈 신화에서는 소가 농사신으로 신격화되어 제주도에 농경문화를 전파한 모티브로 등장하고 있다.[44] 또한 제주신화 속에서 소는 일차적으로 재산과 부 혹은 힘을 상징한다. '세경본풀이'에도 자청비가 하인 정수남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하자,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와 도끼, 적삼을 차려 달라"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정수남이 가진 힘(능력)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소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아홉 마리의 소를 몬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은 생산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소는 아주 훌륭한 일꾼인 것이다. 그러나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생산력의 저하 혹은 상실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는 농경문화와 목축문화가 상충하는 사회적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농경문화로의 이행단계임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제주신화 속에서 소가 돼지와 함께 제물로 사용된 것은 농경사회에서 소가 풍요의 제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세시풍속과 놀이에도 소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제물로 등장한다. 즉, 소가 농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제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45] 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부엉이(장수, 도둑을 물리침)

일반적인 부엉이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장수를 의미다. 즉, 부엉이는 '고양이 얼굴을 지닌 매'라 하여 묘두응(猫頭鷹)이라고도 하는데, 고양이 묘(猫는)는 70세 노인을 뜻하는 '모(크)'자와 음이 비슷하다 하여 장수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고양이가 가지는 장수의 이미지를 담아 고희(古稀)를 축하하는 그림으로 부엉이를 그리고 있다. 한편, 부엉이는 야행성으로 낮에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한다. 이에 어리석고 이해타산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부엉이에 비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 잘 보이는 부엉이의 특성상 밤에 몰래 침입하는 도둑을 잘 지킨다고 하여 부엉이나 올빼미를 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46] 민속에서는 한밤중에 우는 부엉이 소리가 죽음을 상징하므로, 예로부터 부엉이가 동네를 향해 울면 그 동네의 한 집이 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동양에서는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로 여긴[47] 반면, 서양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혜와 공예의 수호신 아테나의 친구로 지혜를 상징하고, 헤겔의 법철학에서는 지혜의 부엉이인 '미네르바의 부엉이'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서는 단군왕검이 부엉이를 체제의 아이콘으로 여겼다[48]는 기록이 있다.

> 아랫녁 마을에 거의 들어설 무렵이었다. 어린아이 셋이서 **부엉이**를 하나 잡고 서로 무엇인가 다투고 있는데 마주쳤다. "애야, 왜 너희들은 그렇게 다투는 거냐?"
>
>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엉일 내 먼저 잡았는데, 저 애가(165) 잡았다고 해서 다툽니다." 아이들은 다 자기가 먼저 잡았노라고 우겨대는 것이었다. "애들아, 그리 말고 이 **부엉일** 나를 주는 게 어떠냐? 내, 돈 서푼을 줄 테니 너희들이 한 푼씩 노나 갖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서 그러세요." 자청비는 부엉이를 사고 서천꽃밭으로 말을 달렸다. 서천꽃밭 울타리 너머로 **부엉이**를 던져 놓고, 서천꽃밭 먼 문

으로 말을 내려 들어갔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밤중만 되면 부엉이가 와 울어 대어 이 꽃밭에 멸망을 줍니다. 그 부엉이를 잡아 주기만 한다면 우리집의 사위를 삼으리다."(166)

자청비는 귀빈 대접으로 정중히 맞아들여졌다. 밤이 이슥해지자, 자청비는 아무도 몰래 문간으로 나갔다. 아래위로 옷을 홀랑 벗어 던지고, 노둣돌 위에 자빠져 누워서 정수남이의 혼령을 불렀다. "정수남아, 정수남아. 혼령이 있거든 **부엉이** 몸으로 환생하여 원(怨)진 내 가슴 위에나 올라앉아 보아라." 얼마 후 부엉이 한 마리가 부엉부엉 울면서 하늘로 날아와 자청비 젖가슴 위에 앉았다. 자청비는 부엉이 두 다리를 꼭 잡고 화할 한 대를 찔러 윗밭으로 던져 놓았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방으로 와 누워 있었다.(167)

위의 자청비 신화에서 신화적 의미를 유추해보면, 정수남을 부엉이로 표현한 것은 어리석고 이해타산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예로부터 부엉이가 한밤중에 동네를 향해 울면 그 동네의 한 집이 상을 당한다고 한 것처럼 부엉이 우는 소리가 죽음을 상징하므로 상금을 걸어서라도 잡아야 할 동물로 간주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신화 속에 등장한 동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동물들을 통해서 제주인들이 섬이 갖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명활동을 해왔을 것이라는 짐작과 제주인의 상상력과

〈표 2〉 동물의 상징적 의미에서 도출한 동물적 모티브

동물	문헌의 상징적 의미	신화이미지에 활용할 신화적 의미	동물적 모티브
닭	• 여명(黎明)과 축귀(逐鬼) • 제액초복(除厄超福)과 소생(蘇生) • 미래 예지(豫知)하는 서조(瑞鳥) • 입신출세, 부귀공명 • 태양과 영혼의 부활	• 여명과 축귀 • 태양과 영혼의 부활 • 입신출세, 부귀공명	
말	• 영혼(靈魂)의 운반자, 천신(天神)의 사자(使者) • 신성한 동물(흰말) • 하늘의 상징인 태양을 의미 ⇨남성을 의미 • 중요 인물의 탄생 • 지상에 평화와 구원 • 이별을 상징	• 지상에 평화와 구원 • 남성을 상징 • 의리와 충절	
소	• 근면(勤勉),우직(愚直), 충직 • 유유자적(悠悠自適), 평화로움 • 재산과 재물, 재생과 생명력, 부활 • 농사신(부, 풍요, 힘)	• 평화로움, 한가함 • 농사신(農事神)으로서의 풍요와 힘	
부엉이	• 초자연적 보호자의 역할 • 묘두응(猫頭鷹:고양이 얼굴을 닮은 매)이라고 칭함(장수를 의미) • 부엉이의 울음소리(죽음을 상징, 흉조와 길조 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님) • 동양(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 • 재물을 상징(먹이를 물어 쌓아두는 습성)	• 초자연적인 보호자의 역할.	

문화, 제주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 체계가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신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미의식도 함께 발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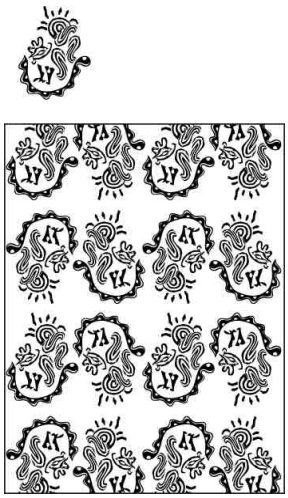
따라서 콘텐츠 원소스가 될 동물들을 중심으로 문헌[49]상의 상징적 의미에서 문양 디자인에 활용할 신화적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디자인한 동물적 모티브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2. 신화이미지를 응용한 동물적 모티브의 텍스타일 패턴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화 속에 등장한 동물은 인간과 친밀한 존재이면서 영적 매개체로서 신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과의 신화적인 밀접한 관계를 신화 콘텐츠로 재창작된 시각적 이미지의 형상화를 포괄적 의미의 동물적 모티브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동물적 모티브란 동물의 형태에서 느껴지는 친밀성과 상징성을 함축시킨 조형적 모티브로, 동물의 주술적인 상징이미지와 동물의 동작을 선의 흐름으로 표현한 동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새로운 조형미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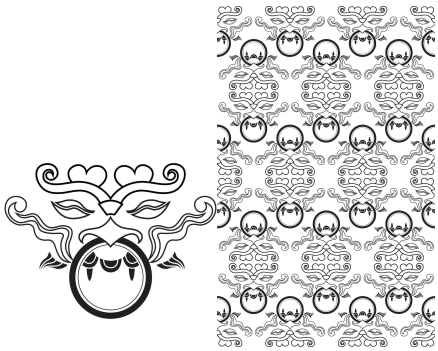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신화문양 중심의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은 신화적 의미를 함축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한 동물적 모티브를 적절한 배열방식을 통해 텍스타일 패턴화 한 것이다. 먼저 텍스타일 패턴을 위한 디자인 기획 포인트는 일차적으로 한국 전통문양의 특성 중에서 장수, 부귀영화, 다남, 다복 등의 길상의 의미와 복락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점, 문양의 형태가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으로 구성된 점, 문양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단순화, 도식화한 평면적인 형태, 그리고 회화적 표현보다는 단순화되거나 체계화된 문양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형태로 구성[50]되었다는 점 등을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이차적으로는 동물의 신화적 의미를 동물적 모티브로 형상화하기 위해 먼저 동물 형태를 재해석한 후 동물 얼굴표정에 신화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동세변화에 포인트를 준 단순화된 선을 활용하여 주술적인 상징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무엇보다도 신화이미지를 응용한 모티브 개발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신화적인 텍스타일 디자인 창출은 물론 길상적 의미가 부여된 신화문양을 다양한 아이템에 삽입함으로써 우리 실생활과의 접목을 시도하여 친밀감을 높이려는 것이다.

디자인 방법으로는 포토샵(Adobe Photoshop CS5 Extended)으로 동물적 모티브를 디자인한 후 패턴화를 위해 레이아웃(Layout) 방법을 사용하였다. 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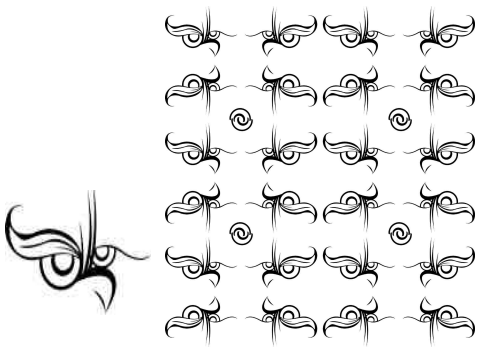


〈그림 1〉 닭을 응용한 신화문양

〈그림 2〉 말을 응용한 신화문양



〈그림 3〉 소를 응용한 신화문양



〈그림 4〉 부엉이를 응용한 신화문양

아웃은 텍스타일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접근하는 공식이다. 다시 말해서 모티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이다. 레이아웃의 종류에는 한 방향레이아웃, 두 방향레이아웃, 네 방향레이아웃, 세트 레이아웃, 토스레이아웃, 전면 레이아웃, 줄 모양레이아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51], 본 연구에서는 주로 두 방향레이아웃 방법으로 배치하여 패턴화 하였다.

〈그림 1〉은 닭의 신화적 의미를 함축시켜 디자인한 양식형의 동물적 모티브이며, 이를 두 방향 레이아웃방법으로 배치하여 텍스타일 패턴화 한 신화문양이다. 다시 말해서, 닭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신화적 의미에 태양이 뜨는 때를 아는 예조의 능력과 태양과 관련된 신성성을 함축시켰으며, 그 외에도 입신출세와 부귀공명의 상징인 문(文)과 무(武)를, 그리고 여명,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길상적 의미를 함축시켰다. 따라서 닭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디자인 의도는 닭과 닭 울음소리를 통한 길상적 의미의 천지개벽과 태양의 새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를 위해 떠오르는 태양과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성인 파도와 현무암 등의 형상화된 배경, 그리고 강조된 닭 벼슬과 날카로운 발톱 묘사를 통해 문무를 겸비한 영웅의 투지, 더 나아가 태양의 새란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2〉는 말의 신화적 의미를 함축시켜 디자인한 양식형의 동물적 모티브이며, 이를 두 방향 레이아웃방법으로 배치하여 텍스타일 패턴화한 신화문양이다. 다시 말해서 말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신화적 의미에 신성하고 상서로움의 상징성과 말➪태양(하늘의 상징)➪남성이란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강인한 남성성, 그리고 지상의 평화와 구원이란 상징적 의미를 함축시켰다. 따라서 말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디자인 의도는 길상적 의미의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의 이미지와 남성다운 이미지 그리고 지상의 평화를 구원하는 이미지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를 위해 제주마인 조랑말에서 풍기는 강건한 남성적 이미지와 제주지상의 거친 바람 이미지를 혼합하여 동세변화에 포인트를 극대화시킨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3〉은 소의 신화적 의미를 함축시켜 디자인한 양식형의 동물적 모티브이며, 이를 두 방향 레이아웃방법으로 배치하여 텍스타일 패턴화한 신화문양이다. 다시 말해서 소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신화적 의미에 농경문화를 전파한 농사신으로서의 부, 풍요, 힘의 상징성과 유유자적의 여유와 한가함, 평화로움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시켰다. 따라서 소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디자인 의도는 농사신이면서 가신(家神)적 의미에 관한 이미지와 한가하며 평화로운 이미지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를 위해 농사신으로서의 풍요와 힘을 강조하기 위해 소의 얼굴표정을 은유적으로 부드러우면서 권위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하늘의 뜻을 알리는 영물로 여긴 소를 인간이 원활한 통제를 하기 위해 소의 코에 구멍을 뚫어 고리모양의 나무를 낀 코뚜레 이미지를 양식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인간과의 친연성은 물론 농가경제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형상이었으며 이를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4〉는 부엉이의 신화적 의미를 함축시켜 디자인한 동물적 모티브이며, 이를 두 방향 레이아웃방법으로 배치하여 텍스타일 패턴화한 신화문양이다. 다시 말해서 부엉이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신화적 의미에 부엉이의 어리석고 이해타산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초자연적 보호자란 길상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를 위해 고양이 얼굴을 지닌 매의 모습으로 장수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날카로운 눈매표현을 통해 지혜로우면서 초자연적 보호자란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화콘텐츠로 재창작된 자청비신화의 신화이미지를 현대패션에서 실질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신화문양으로 도출하고자 신화 속의 동물을 추출한 후 이를 다양한 재해석 및 재구성을 통해 디자인함으로써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자청비신화에서 신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시킨 실상동물 중 닭, 말, 소, 부엉이를 신화콘텐츠로 발췌하여 동물의 원형적 상징 의미와 동물에 대한 경험적 인식, 그리고 주술적 상상을 바탕으로 도출한 신화이미지를 동물적 모티브 중심의 신화문양으로 텍스타일 패턴화하였다. 즉, 인간과 동물과의 신화적인 밀접관계를 형상화하기 위해 신화콘텐츠로 재창작된 시각적 이미지를 포괄적 의미의 동물적 모티브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물 형태를 재해석한 후 동물 얼굴표정에 신화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동세변화에 포인트를 준 단순화된 선을 활용하여 주술적인 상징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무엇보다도 신화이미지를 응용한 모티브 개발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신화적인 텍스타일 디자인 창출은 물론 길상적 의미가 부여된 신화문양을 다양한 아이템에 삽입함으로써 우리 실생활과의 접목을 시도하여 친밀감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디자인 방법으로는 포토샵(Adobe Photoshop CS5 Extended)으로 동물적 모티브를 디자인한 후 두 방향 레이아웃(Layout) 방법으로 배치하여 패턴화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청비신화에서 유추한 닭(닭 울음소리)의 신화적 의미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삶에서 헤어짐과 만남의 전환점에 대한 암시적 의미, 더 나아가 닭이 운다는 것은 하늘과 연결된 곧 밝음을 상징하며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이를 근거로 닭의 동물적 모티브로 형상화시키기 위한 신화적 의미에 태양이 뜨는 때를 아는 예조의 능력과 태양과 관련된 신성성을 함축시켰으며, 그 외에도 입신출세와 부귀공명의 상징인 문(文)과 무(武)를, 그리고 여명,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길상적 의미를 함축시켰다. 따라서 닭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디자인 의도는 닭과 닭 울음소리를 통한 길상적 의미의 천지개벽과 태양의 새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 떠오르는 태양과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성인 파도와 현무암 등의 형상화된 배경, 그리고 강조된 닭 벼슬과 날카로운 발톱 묘사를 통해 문무를 겸비한 영웅의 투지, 더 나아가 태양의 새란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둘째, 자청비신화에서 유추한 말의 신화적 의미는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상징하는 부의 증식수단이면서 남성을 상징한다. 이를 근거로 말의 동물적 모티브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신화적 의미에 신성하고 상서로움의 상징성과 강인한 남성성, 그리고 지상의 평화와 구원이란 상징적 의미를 함축시켰다. 따라서 말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디자인 의도는 길상적 의미의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의 이미지와 남성다운 이미지 그리고 지상의 평화를 구원하는 이미지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를 위해 제주마인 조랑말에서 풍기는 강건한 남성적 이미지와 제주지상의 거친 바람 이미지를 혼합하여 동세변화에 포인트를 극대화시킨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셋째, 자청비신화에서 유추한 소의 신화적 의미는 농사신으로서의 풍요로움과 노동력(힘)을 상징한다.

이를 근거로 소의 동물적 모티브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신화적 의미에 농경문화를 전파한 농사신으로서의 부, 풍요, 힘의 상징성과 유유자적의 여유와 한가함, 평화로움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시켰다. 따라서 소의 동물적 모티브를 위한 디자인 의도는 농사신이면서 가신(家神)적 의미에 관한 이미지와 한가하며 평화로운 이미지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를 위해 농사신으로서의 풍요와 힘을 강조하기 위해 소의 얼굴표정을 은유적으로 부드러우면서 권위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하늘의 뜻을 알리는 영물로 여긴 소를 인간이 원활한 통제를 하기 위해 소의 코에 구멍을 뚫어 고리모양의 나무를 낀 코뚜레 이미지를 양식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인간과의 친연성은 물론 농가경제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형상이었으며 이를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넷째, 자청비신화에서 유추한 부엉이의 신화적 의미는 어리석고 이해타산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비견하였지만, 부엉이의 동물적 모티브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신화적 의미에 부엉이의 어리석고 이해타산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초자연적 보호자란 길상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를 위해 고양이 얼굴을 지닌 매의 모습으로 장수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날카로운 눈매표현을 통해 지혜로우면서 초자연적 보호자란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양식형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청비 신화콘텐츠를 응용한 창의적인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을 시작으로 제주패션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표출할 수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사업의 기본적인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태곤, 최운식, 김진영 편저 (2009), *한국의 신화*, 서울: 시인사, p. 15.
2) 류수현, 김민자 (2011),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해석-뒤랑(G.Durand)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를 중심으로-, *복식, 61(2)*, p. 132.
3) 송태현 (2009), 신화와 문화콘텐츠 - 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2*, p. 133.
4) 김은정 (2010), 자청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 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 4.
5)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역락, p. 15.
6)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11집*, 서울: 보고사, pp. 23-24.
7) 공연예술로서 1999년 제주시립예술단의 창작뮤지컬 자청비, 2001년과 2005년도에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을 제주도 사투리로 공연한 갈라 콘서트, 2002년 한국음악협회 서귀포 지부에서 기획한 마당극 "대지의 여신 자청비", 그 외에 2003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DTV용 디지털 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하늘나무' 등 지역문화가 반영된 콘텐츠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8) 송태현, *op. cit.*, p. 136.
9) 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p. 3.
10)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48.
11) 현용준, *op. cit.*, pp. 276-277.
12) '세경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에서 큰굿을 할 때 31개의 재차 중 17번째로 행해지는 굿거리에서 구송되고 있는 재차인 동시에 신화로, 농경기원신 및 목축신을 맞이하여 굿을 하면서 농경을 가능하게 해준 신에 대한 감사와 풍농 기원, 우마와 같은 목축이 번성할 수 있기를 기원한 제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에 전승되어 온 여성원형으로서의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신화이다. 자청비 신화는 신화 세경본풀이의 주요 모티브로, 자청비라는 한 여성인물이 농경신인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 서사무가(敍事巫歌)이다. 따라서 자청비는 제주의 대표적인 농경신으로 세경(世經)할망이라 불리고 있으며, 세경신이라는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서사무가의 무속제의(巫俗祭儀)에서는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여신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3) 전상차지 가믄장아기-사람의 운명, 즉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을 '전상'이라 하는 데, 이 전상을 '운명의 신'인 가믄장아기가 관장한다. 어린시적 검은 나무바가지에 밥을 담아 먹여 길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 변민주 (2010), *콘텐츠 디자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23.
15) *Ibid.*, p. 22.
16) *Ibid.*, p. 24.
17) 송태현 (2005), *상상력의 위대한 스승들*, 서울: 살림, pp. 170-171.
18) *Ibid.*, p. 150.
19) 조동일, *op. cit.*, p. 109.
20) 조효숙, 임현주 (2010), 전통복식 문화원형 콘텐츠의 디지털 활용 현황과 제언, *복식, 60(6)*, p. 93.
21) 자료검색일 2012. 3. 7, http://dbplus.naver.com/dbplus.naver?where=shamanism&pkgid=201104111&query.
22) 송태현 (2009), *op. cit.*, pp. 133-134.
23) 현용준, *op. cit.*, 서울: 서문당.

24) 천진기 (2002), 동물민속(動物民俗) 연구 시론(試論), *동아시아고대학, 5*, p. 124.
25) 신혜금 (2008), 제주신화 속 동식물 상징 읽기, *영주어문, 16*, p. 136.
26) 현용준, *op. cit.*, p. 176.
27) 신혜금, *op. cit.*, p. 136.
28) 자료검색일 2012. 5. 15,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feature.do
29) 남철균 편저 (2005), *문양의 의미*, 서울: 태학원, pp. 2-3.
30) *Ibid.*, p. 103.
31) 신혜금, *op. cit.*, p. 141.
32) 김지수 (2009), *재미있는 민화속의 문양이야기-의미와 상징편-*, 서울: 한지이야기, p. 27.
33) 임영주 (2011),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pp. 77-78.
34) 남철균 편저, *op. cit.*, pp. 493-495.
35) 우리나라의 우주기원신화, 인류기원신화, 문화기원신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신화라고도 함.
36) 천진기 (2001),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 217.
37) *Ibid.*, p. 225.
38) 현용준, *op. cit.*, p. 151.
39) 천진기 (2001), *op. cit.*, p. 169.
40) *Ibid.*, p. 183.
41) 남철균 편저, *op. cit.*, p. 433.
42) *Ibid.*, pp. 440-441.
43) 김지수, *op. cit.*, p. 64.
44) 천진기 (2001), *op. cit.*, p. 65.
45) 신혜금 (2008), *op. cit.*, pp. 143-144
46) 김지수, *op. cit.*, p. 52.
47) 자료검색일 2012. 4. 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2383
48) 손미선 (2005), *작은 박물관 101곳*, 서울: 김영사, p. 20.
49) 삼국유사, 삼국사기, 사기(史記)의 조선전(朝鮮傳), 삼국지, 위지동이전, 진서 등에서 발췌
50) 김지현, 간호섭 (2009),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복식, 59(9)*, p. 3.
51) 차임선 (2008), *텍스타일 디자인*, 서울: 예경, p. 73.